



KOB A 2015, Broadcasting, Touching your emotion!

5월 19일~22일 개최, 세계 미디어 기술 동향을 한 자리에서!

방송과기술 편집부

“방송, 감성을 연결하다. - Broadcasting, Touching your emotion.” 라는 주제로 제25회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KOB A 2015 - 25th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가 2015년 5월 19일(화)부터 22일(금)까지 4일간 삼성동 코엑스(COEX)전시장 A, C, D홀 및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됐다.

1991년을 시작으로 올해 25회를 맞은 KOB A 2015는 작년 대비 전시장 면적은 그대로이지만(27,997m²) 총 32개국 932개사가 참가하였으며, 나흘 동안 43,360여 명이 KOB A 전시장을 찾아 최신 방송기술과 장비를 경험했다. 방송, 음향, 조명에 대한 전시품목은 프로덕션, 포스트프로덕션, 딜리버리 & 디스트리뷰션, 모바일, 시험 및 계측장비, 음향관련기기, 조명관련기기, 무대관련기기, 디스플레이 등으로 방송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

KOB A 2015 참관객 현황

5월 19일(화) 9,493명

5월 20일(수) 11,031명

5월 21일(목) 11,259명

5월 22일(금) 11,577명

총 43,360명
(KOB A 2014 - 44,002명)

최신 기술 및 장비 시연의 전시장

이번 KOBA 2015의 주요 특징으로 역시 4K/UHD로 집중되는 방송장비와 솔루션을 들 수 있다. NAB 2015에서 선보인 4K 카메라와 렌즈, 그리고 출시 예정인 제품까지 전시 및 체험할 수 있었고, 4K 제작 및 중계에 대한 본격적인 제안이 각 업체 부스에서 전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4K 데이터 전송을 위한 12G-SDI와 IP 기반 방송솔루션도 몇몇 업체에서 선보여 4K 방송의 현실성을 보다 앞당기는 모습이었다. 최근 4K에 대한 이슈인 HDR 및 HEVC 코덱에 대해서는 여러 부스에서 비교 영상을 시연하여 HD보다 실재감이 뛰어난 영상미를 체험할 수 있었다. 4K와 함께 제작을 돕는 여러 장비들도 다수 선보였다. 프로텍의 광전송 솔루션과 짐벌 등을 포함해, 크기별로 다른 지미집 등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충분했다. 또한, 작년부터 제작의 대세로 떠오르는 드론 부스와 관련강연에서는 방송종사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음향 및 조명 부에서도 4K 전광판과 각종 무선 음향장비 및 콘솔, 스피커 등이 선보였고, 헤드폰 및 마이크 등 이제는 대중화된 여러 제품이 전시됐다.

방송사 부스에서도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함께 4K를 즐기기에 가정의 거실 형태의 시청 환경 제시 등 작년과 다른 생활화되고 있는 4K의 미래를 제시했다. HMD를 사용하여 제작 현장의 실감영상을 직접 경험해 볼 수도 있었고, 더빙 현장을 재현하는 서비스 등은 전시장을 찾은 이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수동적인 관람 형태가 아닌 직접 보고, 만져보는 유형의 전시 컨셉은 방송사가 시청자와 눈높이를 같이 한다는 느낌을 주는 듯하였고, 앞으로도 체험 형식의 콘텐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미디어 동향을 제시한 WORLD MEDIA FORUM

기존 KOBA 콘퍼런스에서 진행돼오던 포럼을 보다 확장하여 선보인 WORLD MEDIA FORUM은 방송에 종사하는 이들의 많은 환영을 받았다. BBC, Netflix, Google, EBU, NAB 등 이제는 거대 미디어 기업이 된 세계적인 회사가 어떤 정책과 계획을 세우고 레드오션의 방송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와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는데, 500여 석의 강의실을 전부 채울 정도였으니, 그 열기와 관심이 느껴질만 했다. BBC는 iplayer의 주요 특징, Netflix는 기업 정신과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는데, OTT를 넘어 모든 미디어가 인터넷TV로 수렴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6개의 세션으로 최신 이슈 제공, 국제방송기술콘퍼런스

국제방송기술콘퍼런스는 하루의 강의를 줄이고, 강의마다 쉬는 시간을 늘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크게 6개의 주제를 통해 방송에 대한 정리를 하였는데 Beyond Definition에서는 4K/UHD에 대한 내용을 모았고, Pre Engineer 세션을 통해서 방송기술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술 동향과 워크플로우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방송엔지니어, 나는 이렇게 입사했다!'를 통해서 최근 입사한 새내기 방송기술인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강의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였다. 'TV Everywhere & SmartMedia'에서는 다양한 뉴미디어와 플랫폼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 대한 문제와 미래 방향을 예견하고자 하였고, 21일 개최되었던 스마트미디어 관련 토론회를 통해서도 작금의 미디어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Network & System 세션에서는 방송시스템의 변화 및 최근 트렌드를 담았으며, Extreme Technics에서는 드론 및 액션카메라 등 변화하는 방송제작에 대한 현재 모습을 보여주었다.

KOBA의 필수품, Daily News

KOBA 기간 중 무료로 배포되는 KOBA Daily News는 방송 시장의 변화와 주요 이슈, KOBA 전시장 소식 및 콘퍼런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KOBA를 찾은 관람객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었으며, 특히 올해에는 준비된 부수가 매일 관람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모두 배포되어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